

전주 지역 일부 보육교사의 식행동 및 급식 지도 활동에 대한 연구

†노정옥 · 이숙인 · 이진숙*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A Study on the Dietary Behaviors of Day-Care Center Teachers and Their Meal Attitude Education during Meal Time in Jeonju Area of Korea

†Jeong Ok Rho, Suk In Lee and Jin Sook Lee*

Dept. of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61-756, Korea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61-756,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etary behavior of day-care center teachers and their meal attitudes during meal time in Jeonju area.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66 day-care center teachers who worked in a national(public) or private day-care center. The Statistical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v. 12.0. All subjects were women, and 64.7% were married($p<0.001$), over more than 60% were junior college graduates($p<0.05$), and 73.7% had salaries greater than 1,000,000 won($p<0.001$). The breakfast skipping ratio of the subjects was very high, and about 66.5% of the respondents had irregular meals. The snack intake ratios of the subjects in private day-care centers were higher than the subjects in national(public) day-care centers($p<0.001$). Approximately 56% of the subjects responded that education about eating is very important for providing balanced nutrition to young children. About 84% of subjects had no experience with the continuing-education program for teachers($p<0.01$), and they wanted to know more about balanced nutrition. The meal attitude education score during meal time was 4.53 ± 0.36 . The relationship between meal attitude education and the dietary behavior of day-care teacher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the "frequency of overeating"($p<0.05$) and "self-recognition of eating habit"($p<0.05$).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day-care center teachers should be developed so that they can effectively manage meal attitud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nd provide good nutrition for themselves.

Key words: dietary behavior, day-care center teacher, meal attitude education.

서 론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2007년 50.2%로 증가 추세이며(보건복지부 2008), 이 같은 기혼 여성들의 사회 참여 및 경제 활동의 증가로 보육제도는 사회적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보육서비스는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2007년 12월 기준 아동 보육시설 수는 30,856개로 1991년에 비해 약 6배가 증가하였으며, 주민등록상 만 5세

미만인 보육 대상 아동 중 27.5%의 해당되는 1,099,933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2009년 기준, 전라북도 보육시설 수는 총 1,536개소로 55,619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전북보육정보센터 2010).

보육시설은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에게 1회 이상의 식사와 2회 이상의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Rho 등 2009). 유아들의 영양 지식이나 식습관은 가정에서의 식생활 경험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영유아 보육시

† Corresponding author: Jeong Ok Rho, Dept. of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664-14 Dukjin-dong, Dukjin-gu, Jeonju 561-756, Korea. Tel: +82-63-270-4135, Fax: +82-63-270-3854, E-mail: jorho@chonbuk.ac.kr

설의 아동들은 활동 시간의 대부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게 되므로 보육시설에서의 식습관 지도와 영양 관리가 어린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Lim HS 1997). 따라서 보육시설에서의 급식 제공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으로 아동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므로 급식 제공은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아동의 식생활 발달에 대한 책임이 가족으로부터 점차 보육시설로 이동하고 있어 아동들의 식습관 형성에 보육교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어 보육시설 교사들의 바른 식습관 실천이 더욱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Park SY(2006)의 연구에 의하면 아침 식사 결식율, 식사의 불규칙성, 과식과 짠 음식에 대한 높은 선호도 등 건강한 식습관에 부합되지 않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며, 보육교사의 식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Jang & Kim(2003)은 70%의 보육시설에서 식단 계획을 급식 관리 전문가가 아닌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사들은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영양적으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영양 지식이 부족하며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받을 때 교육과정에 영양 관련 과목의 이수 경험이 거의 없고 연수나 보수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영유아의 영양 및 식사 지도에 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급식 관리를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Lee 등(2005)은 보육교사의 영양 지식 수준의 편차가 경력별로 크므로 아동들의 급식을 지도하는 보육교사들에게 기본적인 영양 지식과 함께 이를 급식 활동의 실질적인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영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보육시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보육시설 환경(Park 등 2003), 보육시설 아동의 영양 평가(Sin & Lee 2005; Lee & Cho 2006), 급식 관리 실태(Lee 등 2006; Chang 등 2008; Choe & Lee 2009; Rho 등 2009), 학부모의 태도(Lee & Oh 2005; Lee 등 2008), 보육교사의 직무 태도(Song KS 2008), 보육교사들의 영양 지식 및 급식 지도 활동(Lee 등 2005, Choi 등 2005; Song & Heo 2010), 보육교사의 역할(Ahn & Kim 2010) 등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보육시설 아동의 급식 지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 보육시설에서의 교사의 급식 지도 실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주 지역의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교사들의 식행동과 급식 지도 실태를 조사하여 전주 지역 보육시설의 식생활 지도의 방식과 문제점을 찾아 효율적인 식생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설문 조사는 전주시의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266명을 대상으로 2008년 1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2007년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10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 후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 대상 교사들을 방문하여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를 위하여 총 350부를 배포하여 총 29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29부를 제외한 266부(90.2%)를 통계 처리에 이용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전주 지역 보육교사의 식행동과 급식 지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 연구(Woo YJ 1998; Kim JS 2003)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보육교사의 일반 사항(연령, 성별, 결혼 여부, 경력 등) 9문항, 교사의 식행동(아침 식사 여부, 식사의 규칙성, 간식 여부 등) 9문항, 보육시설의 급식 관리 활동(급식 지도가 필요한 이유, 급식 지도 방법, 정보 취득원 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급식 지도 내용은 스스로 혼자 먹게 지도하기, 바른 자세로 앉아 먹게 지도하기, 포크·수저의 올바른 사용법 지도하기 등 1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평가기준은 '적극적으로 실행한다'(5점)~'전혀 실행하지 않는다'(1점)로 계산하였다. 조사 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s alpha 계수는 0.8 이상이었다.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의 비교는 χ^2 검정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두 시설간의 평균값을 비교할 때는 *t*-검정(one sample *t*-test) 방법을 이용하여 시설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보육교사의 식행동에 따른 급식 지도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alpha=0.05$ 에서 Duncan의 다중범위분석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 보육교사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연령과 경력은 Table 1,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 자격증의 종류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자 266명은 모두 여성이며, 국·공립시설 교사 75명(28.2%),

민간시설 교사 191명(71.8%)이었다. 교사의 평균 연령은 국·공립시설 평균 29세, 민간시설 평균 31세이었다. 평균 경력은 국·공립시설 3.5년, 민간시설은 4.5년이었다. 교사의 결혼 여부는 64.7%가 미혼자, 35.3%는 기혼자이었다($p<0.001$).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은 전문대졸(60.5%)>대학졸(34.2%)>고졸(5.3%)의 순이었으며, 시설별로는 국·공립시설의 경우 전문대와 대학졸이 각각 48%, 고졸 4%이나 민간시설은 전문대졸 65.4%, 대졸 28.8%, 고졸 5.8%로 국·공립시설이 민간

시설보다 학력 수준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Son JK(2001)의 연구에서도 보육교사의 학력 수준은 국·공립시설이 민간시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담당하는 아동들의 연령은 전체적으로 3세 28.9%, 4세 20.7%, 5세 27.1%, 혼합 연령 22.3%로 시설간의 유의적인 차이 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은 전체 41%의 교사가 12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으며, 시설별로는 국·공립시설은 100~119만 원 18.7%, 120만 원 이상 73.3%, 민간시설은 80~99만 원 30.4%, 100~119만 원 38.2%, 120만 원 이상 28.3%로 국·공립시설이 민간시설보다 급여 수준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보육시설의 교사들의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는 Table 3에 제시되었듯이 전체적으로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율이 78.6%로 가장 높았다. 시설별로는 국·공립시설 82.7%, 민간시설 76.9%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국·공립시설 17.3%, 민간시설 18.3%

Table 1. Age and career of child care teachers

(Mean±S.D.)

Variable	Total (n=266)	National/public (n=75)	Private (n=191)	p-value
Age(year)	30.91±6.43	29.48±7.01	30.97±5.93	0.451
Career(year)	4.26±3.48	3.53±3.21	4.53±3.55	0.180

p-value by t-test.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 care teachers

N(%)

Variable	Total (n=266)	National/public (n=75)	Private (n=191)	p-value	
Material status	Unmarried	172(64.7)	58(77.3)	0.000	
	Married	94(35.3)	17(22.7)		77(40.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4(5.3)	3(4.0)	11(5.8)	0.020
	Junior college	161(60.5)	36(48.0)	125(65.4)	
	University	91(34.2)	36(48.0)	55(28.8)	
Children's age (year)	3	77(28.9)	23(30.7)	54(28.3)	0.541
	4	55(20.7)	15(20.0)	40(20.9)	
	5	72(27.1)	21(28.0)	51(26.7)	
	Mixed	62(22.3)	16(21.3)	46(24.1)	
Monthly income (10,000 won)	60~79	8(3.0)	2(2.7)	6(3.1)	0.000
	80~99	62(23.3)	4(5.3)	58(30.4)	
	100~119	87(32.7)	14(18.7)	73(38.2)	
	120<	109(41.0)	55(73.3)	54(28.3)	

p-value by χ^2 -test.

Table 3. Qualification of child care teachers

(plural answer) N(%)

Variable	Total (n=266)	National/public (n=75)	Private (n=191)	
Kind of qualification	Child care teacher 1st	209(78.6)	62(82.7)	147(76.9)
	Child care teacher 2nd	48(18.0)	13(17.3)	35(18.3)
	Child care teacher 3rd	13(4.9)	1(1.3)	12(6.2)
	Kindergarten teacher	121(45.5)	32(42.6)	89(46.6)
	Social welfare worker	29(10.9)	13(17.3)	16(8.3)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or	5(1.9)	0(0.0)	5(2.6)

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그러나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은 국공립시설 1.3%, 민간시설 6.2%로 시설간의 높은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은 국·공립시설 42.6%, 민간시설 46.6%로 비슷한 비율이었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공립시설 17.3%, 민간시설 8.3%로 차이를 보였다.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은 2.6%의 민간시설 교사만이 소지하고 있었다. Huh ES (2007)의 서울과 경기도 지역 보육시설 대상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 중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56.4%, 유치원 교사 2급 18.6%, 보육교사 2급 14.5%, 보육교사 3급 3.5%, 유치원 교사 1급 3.2%로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와 본 조사 결과를 비교할 때 전주 지역 보육교사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 교사들보다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보육교사의 식행동

보육교사의 식행동 조사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아

침 식사 섭취 여부는 전체의 34.2%의 교사가 ‘항상 먹는다’, ‘가끔 먹는다’ 32.7%, ‘전혀 먹지 않는다’ 33.1%이었다. 시설 별로는 국·공립시설의 경우, 아침 식사를 ‘꼭 먹는다’ 26.7%, ‘가끔 먹는다’ 37.3%, ‘안 먹는다’ 36.0%이며, 민간시설의 경우, ‘꼭 먹는다’ 37.2%, ‘가끔 먹는다’ 30.9%, ‘안 먹는다’ 31.9%로 아침 식사 섭취율은 높지 않았다. 식사의 규칙성은 전체 66.5%의 교사가 ‘불규칙’, 33.5%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고 답하였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30.7%는 ‘규칙적’, 69.3%는 ‘불규칙’이며, 민간시설에서도 34.6%는 ‘규칙적’, 65.4%는 ‘불규칙’인 것으로 국·공립시설의 교사들이 민간시설의 교사보다 식사가 더 불규칙적이었다. 식사의 과식 정도는 전체 교사의 85.3%가 ‘가끔 한다’고 답하였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96%의 교사가 가끔 또는 항상 과식을 한다고 답하였으며, 민간시설의 경우는 88.5%만이 해당되어 두 집단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1$).

Table 4. Dietary behavior of child care teachers

N(%)

Variable		Total (n=266)	National/public (n=75)	Private (n=191)	p-value
Frequency of breakfast	Always	91(34.2)	20(26.7)	71(37.2)	0.261
	Sometimes	87(32.7)	28(37.3)	59(30.9)	
	None	88(33.1)	27(36.0)	61(31.9)	
Regularity of meals	Yes	89(33.5)	23(30.7)	66(34.6)	0.325
	No	177(66.5)	52(69.3)	125(65.4)	
Frequency of overeating	Always	14(5.3)	9(12.0)	5(2.6)	0.002
	Sometimes	227(85.3)	63(84.0)	164(85.9)	
	None	25(9.4)	3(4.0)	22(11.5)	
Frequency of snack intake	Always	114(42.9)	47(62.7)	67(35.1)	0.000
	Sometimes	147(55.3)	28(37.3)	119(62.3)	
	None	5(1.9)	0(0.0)	5(2.6)	
Self-recognition of eating habit	Balanced	135(50.8)	33(44.0)	102(53.4)	0.333
	Partly balanced	118(44.4)	37(49.3)	81(42.4)	
	Unbalanced	13(4.9)	5(6.7)	8(4.2)	
Washing hands before eating	Always	163(61.2)	44(58.7)	119(62.3)	0.705
	Sometimes	101(38.0)	30(40.0)	71(37.2)	
	Rarely	2(0.8)	1(1.3)	1(0.5)	
Brushing teethes after eating	Always	182(68.4)	48(64.0)	134(70.2)	0.531
	Sometimes	82(30.8)	26(34.7)	56(29.3)	
	Rarely	2(0.8)	1(1.3)	1(0.5)	
Taking nutritional supplements	Always	8(3.0)	3(4.0)	5(2.6)	0.063
	Often	32(12.0)	14(18.7)	18(9.4)	
	Sometimes	112(42.1)	34(45.3)	78(40.8)	
	None	114(42.9)	24(32.0)	90(47.1)	

p-value by χ^2 -test.

간식 섭취는 55.3%가 ‘가끔 한다’, ‘항상 한다’ 42.9%, ‘전혀 하지 않는다’는 1.9%에 불과하였다. 국·공립시설의 교사는 ‘항상 한다’ 62.7%, ‘가끔 한다’ 37.3%이며, 민간시설의 경우는 ‘가끔 한다’ 62.3%, ‘항상 한다’ 35.1%로 국·공립보육시설 교사보다 민간시설 교사의 간식 섭취 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01$).

평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지에 대한 본인들의 판단을 살펴 본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50.8%가 ‘골고루 먹는다’, 44.4%는 ‘조금 가려먹는다’, 4.9%는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이었다. Park SY(2006)의 경북 지역 보육교사의 식습관 조사에서도 약 60%의 응답자가 골고루 먹는다고 답하였으며, Seo SK(2006)의 전북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의 식습관 조사에서는 여교사의 74.7%가 골고루 먹는다고 답한 결과와 비교할 때 보육교사의 편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자들의 식사 전 손을 씻는가에 대하여 ‘항상 씻는다’ 61.2%, ‘가끔 잊는다’ 38.0%, ‘대체로 안 씻는다’ 0.8%의 순으로 답하였다. 식사 후의 양치질은 68.4%의 조사 대상자가 ‘항상 한다’, 30.8%는 ‘가끔 잊는다’고 답하였다. 보건복지부 구강건강상태조사(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5세 아동들의 치아우식증 경험 비율은 67.7%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식사 전에 교사들이 아동들과 함께 손씻기와 식사 후 양치질을 한다면 교사와 아동들의 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치아우식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조식품의 섭취는 두 집단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전체의 3%만이 규칙적으로 섭취, 42.9%는 전혀 섭취하지 않고 있었다. 건강보조식품 섭취 경험자 중 섭취한 식품의 종류를 직접 기입하도록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비타민제(57.1%)>칼슘제(20.0%)>클로렐라

제품, ω -3 제품 및 홍삼 제품(11.4%)의 순이었으며, 민간시설은 비타민제(55.3%)>홍삼 제품, 철분 제품(12.8%)의 순이었다. 학교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Kang 등(2007)의 연구에서는 영양 보충제(57.9%)>홍삼 제품(52.9%)>클로렐라 제품(30.0%)>인삼 제품(27.1%)>알로에 제품(27.1%)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보육시설 교사와 영양사 모두 비타민제 등의 영양 보충제를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49세의 성인 여성은 비타민/무기질제 섭취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보건복지부 2006), 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3. 보육교사들의 급식 지도 실태 및 문제점

Table 6은 보육교사들의 급식 지도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전체 56.4%의 보육교사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하여’ 급식 지도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편식 교정을 위해서’(29.3%), ‘식사 예절 지도 때문에’(13.9%)의 순이었다. 편식 교정에 대한 관심은 국·공립시설 교사가 민간시설 교사보다 높으며, 식사 예절 지도에 대한 관심은 국·공립시설보다 민간시설 교사가 높았다. Kim JS(2003)의 연구에서는 편식 교정 35.4%, 식사예절 지도 35.4%, 균형 있는 영양 공급 24.1%의 순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급식 지도의 방법은 전체 64.3%의 교사가 급식 시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으며, 25.6%의 보육교사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실시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국·공립시설은 급식 시간에 민간시설에서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주로 급식 지도를 하고 있었다. Lee & Shin(1997)의 연구에서도 74%의 시설에서 급식 시간에, 21%의 시설은 수업 시간 중에 급식 지도를 한다고 보고하여 대부분 급식 시간에 급식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식 지도를 위한 정보 취득원은 잡지(34.2%), 자신의 경험(33.1%), 인터넷(23.7%), 교사 연수(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국·공립시설의 경우, 자신의 경험(40%)>인터넷(32.0%)>잡지(21.3%)>교사 연수(4.0%)의 순이었으나, 민간시설의 경우는 잡지(39.3%)>자신의 경험(30.4%)>인터넷(20.4%)>교사 연수(9.9%)로 시설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1$).

조사 대상자들의 급식 지도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은 ‘아동의 편식’(45.9%), ‘유아들의 밥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25.9%), ‘아동의 인원’(6.4%), ‘급식 지도에 대한 이해 부족’(5.6%), ‘어린나이의 이해의 어려움’(4.1%), ‘부모의 요구’(2.3%)이었다. Lee 등(2005)의 보육교사들의 영양 지식 평가에 따르면 어린이의 불규칙한 식생활에 대한 지도법이나 비만 어린이 판정 기준 등 급식 지도의 실질적 문제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여 급식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

Table 5. Kind of nutritional supplements

(plural answer) N(%)

Variable	Total (n=82)	National/ public (n=35)	Private (n=47)
Vitamin products	46(56.0)	20(57.1)	26(55.3)
Calcium agent	9(10.9)	7(20.0)	2(4.2)
Chlorella products	8(9.8)	4(11.4)	4(8.5)
ω -3 products	9(10.9)	4(11.4)	5(10.6)
Steamed red ginseng products	10(12.1)	4(11.4)	6(12.8)
Iron products	9(10.9)	3(8.6)	6(12.8)
Medicine for promoting nutrition	4(8.5)	2(5.7)	2(4.2)
Ginseng products	4(8.5)	1(2.9)	3(6.4)

Table 6. Status of meal attitude education

N(%)

Variable	Total (n=266)	National/public (n=75)	Private (n=191)	p-value	
Necessity of a meal attitude education	Correcting an unbalanced diet	78(29.3)	25(33.3)	53(27.7)	0.298
	Learning table manners	37(13.9)	6(8.0)	31(16.2)	
	Providing balanced nutrition	150(56.4)	44(58.7)	106(55.5)	
	Parents' demand	1(0.4)	0(0.0)	1(0.5)	
Method of meal attitude education	Using meal time	171(64.3)	57(76.0)	114(59.7)	0.108
	Story telling	68(25.6)	12(16.0)	56(29.3)	
	Bulletin board	3(1.1)	0(0.0)	3(1.6)	
	Home letter	24(9.0)	6(8.0)	18(9.4)	
Information source	Continuing program	22(8.3)	3(4.0)	19(9.9)	0.002
	Internet	63(23.7)	24(32.0)	39(20.4)	
	Magazine	91(34.2)	16(21.3)	75(39.3)	
	Self-experience	88(33.1)	30(40.0)	58(30.4)	
	Others	2(0.8)	2(2.7)	0(0.0)	
Problems for the meal attitude education	Lack of knowledge	15(5.6)	5(6.7)	10(5.2)	0.074
	Parents' complain	6(2.3)	3(4.0)	3(1.6)	
	Age of children	11(4.1)	2(2.7)	9(4.7)	
	No. of children	17(6.4)	7(9.3)	10(5.2)	
	Unbalanced diet of children	122(45.9)	26(34.7)	96(50.3)	
	Lang time for eating	69(25.9)	26(34.7)	43(22.5)	
	Nothing	26(9.8)	6(8.0)	20(10.4)	
Experience of continuing education	Yes	42(15.8)	4(5.3)	38(19.9)	0.004
	No	224(84.2)	71(94.7)	153(80.1)	
Wished program for the continuing education	Balanced diet	141(53.0)	57(76.0)	84(44.0)	0.000
	Table manners	36(13.5)	7(9.3)	29(15.2)	
	Nutrition education	82(30.8)	11(14.7)	71(37.2)	
	Others	7(2.6)	0(0.0)	7(3.7)	

p-value by χ^2 -test.

다. 따라서 급식 지도 활동 시 아동의 편식과 관련된 영양 교육 및 급식 지도 등의 실질적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연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보육시설 교사의 급식 관련 연수 경험은 전체 15.8%의 교사만 '있다', 84.2%의 교사는 '없다'고 답하였다. 시설별로는 국·공립시설 5.3%, 민간시설 19.9%가 '있다'이며, '없다'는 국·공립시설 94.7%, 민간시설 80.1%로 두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연수를 받은 곳과 주제를 자유로이 기재하도록 한 결과, 국·공립시설의 경우 보건소에서 실시된 '유아의 영양과 건강'이며, 민간시설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영양 교육과 직무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희망하는 교육 내용은 76.0%의 국·공립시설과 44%의 민간시설의 교

사 모두 아동들의 편식 지도이며, 그 다음은 국·공립시설 교사 14.7%, 민간 보육시설 교사 37.2%가 영양 교육을 희망하였다($p<0.001$).

4. 보육교사의 급식 지도 활동 내용

보육교사들의 급식 지도 활동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체 급식 지도 평균 점수는 4.53으로 국·공립시설 4.53, 민간시설 4.54이었다.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은 '식사 전 손을 씻게 지도'(4.85)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식사 후 양치질 지도'(4.84) > '바른 자세로 앉아 먹게 지도'(4.83) > 스스로 혼자 먹게 지도'(4.80) > '식사 중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도'(4.72) > '꼭꼭 씹도록 지도'(4.64) > '편식 지도'(4.59), '먹고 난 자리를 정리하도록 지도'(4.59) > '음식물을 남기지 않게 지

Table 7. Contents of meal attitude education during meal time

Variable	Mean±S.D. (n=266)	National/public (n=75)	Private (n=191)	p-value
Eating by child himself/herself	4.80±0.51	4.76±0.54	4.81±0.50	0.219
Having appropriate eating behavior	4.83±0.46	4.77±0.50	4.85±0.43	0.033
Handling of forks & spoons properly	4.52±0.67	4.45±0.66	4.54±0.67	0.802
Prohibition of speaking while eating	4.22±0.85	4.27±0.81	4.20±0.86	0.520
Prohibition of plate wastes	4.55±0.67	4.69±0.54	4.50±0.71	0.000
Adequate meal time	4.38±0.70	4.43±0.73	4.36±0.69	0.389
Prohibition of unbalanced diet	4.59±0.73	4.65±0.70	4.57±0.75	0.264
Prohibition of overeating	4.01±1.03	3.91±1.14	4.05±0.98	0.179
Prohibition of moving while eating	4.72±0.54	4.76±0.46	4.71±0.57	0.082
Good feeling before meal time	4.31±0.84	4.09±0.90	4.40±0.81	0.356
Washing hands before eating	4.85±0.44	4.89±0.35	4.83±0.47	0.026
Good chewing	4.64±0.59	4.63±0.63	4.64±0.58	0.501
Brushing teeth after eating	4.84±0.42	4.84±0.40	4.84±0.43	0.867
Cleaning up the table after eating	4.59±0.67	4.56±0.66	4.60±0.68	0.864
Prohibition of noise while eating	4.23±0.84	4.25±0.87	4.22±0.86	0.794
Mean±SD	4.53±0.36	4.53±0.35	4.54±0.35	0.912

Scale: A 5-point scale was used from 1 to 5(1: never, 3: moderate 5: most).

p-value by t-test.

도(4.55)가 평균값 이상으로 잘 지도하고 있었다. 시설 유형별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목은 ‘바른 자세로 앉아 먹게 지도’($p<0.05$), ‘음식물 남기지 않게 지도’($p<0.001$), ‘식사 전 손 씻기 지도’($p<0.05$)이었다. 평균값 이하로 지도가 되고 있는 것은 ‘포크와 수저의 올바른 사용법 지도’(4.52) ‘식사 시간을 적절히 지도’(4.38) ‘급식 전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지도’(4.31) ‘소리 내어 먹지 않도록 지도’(4.23) ‘식사 중 입 안에 음식을 넣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지도’(4.22) ‘과식을 하지 않도록 지도’(4.01)의 순이었다. Lee 등(2005)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식사 시의 위생이나 정리 측면에서 급식 지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도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위생적인 면을 강조하여 지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Han 등(2004)의 한국과 스웨덴 교사의 급식 지도 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 교사는 아동의 영양소 섭취 및 위생면을 중시하는데, 스웨덴 교사는 아동 스스로 먹기 등과 같이 아동의 독립심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먹기를 중요시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아동이 음식을 먹기 싫어할 때 한국 교사는 아동에게 음식을 먹여 주나 스웨덴 교사는 아동의 의사에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급식 지도 활동의 내용이 아동들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는 스웨덴 교사들의 태도는 우리나라 교사들의 급식 지도와 비교할 때 아동의 의사 존중면에서 참조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보육교사의 식행동에 따른 급식 지도 점수의 차이는 Table 8과 같다.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은 과식 빈도와 본인의 식습관 평가이었다. 과식을 하지 않거나 항상 과식하는 교사와 가끔 과식을 하는 교사 간에 급식 지도 활동 정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본인의 식습관 평가에서 본인의 식습관을 균형적으로 평가한 교사와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 교사 간에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였다.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아침 식사 빈도’에서는 매일 식사를 하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급식 지도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간식 섭취 빈도’에서는 간식 섭취 빈도가 높은 교사와 ‘식사 전 손 씻기’와 ‘식사 후 양치질하기’에서는 항상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교사의 급식 지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Lee 등(2005)의 보육교사들의 영양 지식 및 급식 지도 활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보육교사의 경우 영양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식사 지도 활동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거나 통계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보육경력이나 식사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Seo SK(2006)는 전북 지역 중등교사들은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영양 지식이 필요하고 식습관 태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으나, 영양 지식 수준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의 실천 위주의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조사에서도 보육교사들의 식행동 행태는 실질적인 급식 지도 활동에 별로 연관

Table 8. Relationship between meal attitude education and the dietary behavior of day-care teachers

Variable		Mean±S.D.	p-value
Frequency of breakfast	Always	4.57±0.28	0.314
	Sometimes	4.49±0.39	
	None	4.55±0.38	
Regularity of meals	Yes	4.54±0.33	0.961
	No	4.54±0.37	
Frequency of overeating	Always	4.54 ^a ±0.34	0.024
	Sometimes	4.29 ^b ±0.46	
	None	4.58 ^a ±0.39	
Frequency of snack intake	Always	4.57±0.34	0.224
	Sometimes	4.51±0.36	
	None	4.34±0.40	
Self-recognition of eating habit	Balanced	4.54 ^b ±0.32	0.042
	Partly balanced	4.51 ^b ±0.39	
	Unbalanced	4.71 ^a ±0.29	
Washing hands before eating	Always	4.56±0.34	0.232
	Sometimes	4.49±0.37	
	Rarely	4.73±0.38	
Brushing teethes after eating	Always	4.56±0.34	0.192
	Sometimes	4.49±0.39	
	Rarely	4.83±0.47	
Taking nutritional supplements	Always	4.50±0.49	0.344
	Often	4.63±0.23	
	Sometimes	4.55±0.36	
	None	4.50±0.36	

Scale: A 5-point scale was used from 1 to 5(1: never, 3: moderate, 5: most).

p-value by *t*-test, p-value by one-way ANOVA.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교사의 경우 모범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im 등(2008)의 연구에서 조사 대상 어머니의 과반수 이상이 자녀가 되도록 어릴 때 영양 교육을 받아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기를 원하며, 가정과 보육시설이 연계하여 교육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식행동은 보육시설의 아동들의 올바른 식생활 태도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들의 건강 관리 및 식습관 변화를 위한 교육은 물론 이를 급식 지도 활동의 실질적인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와 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식행동과 급식 지도 실태 조사를 위하여 전주 지역 보육교사의 견해를 조사한 것이다. 응답한 266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여성이며 국·공립시설 교사 75명(28.2%) 평균 연령 29세, 민간시설 교사 191명(71.8%), 평균 연령 31세이었다. 평균 교사 경력은 국·공립시설 3.5년, 민간시설 4.5년이었다. 보육교사의 64.7%는 미혼자, 35.3%는 기혼자이었다($p<0.001$). 최종 학력은 60.5%가 전문대졸, 34.2%는 대학졸로 민간시설이 국·공립시설보다 전문대졸이 많았다($p<0.05$). 급여는 전체 41%가 120만 원이며, 국·공립시설이 민간시설보다 급여 수준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소지하는 자격증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78.6%로 가장 많았다.

보육교사의 식행동 조사 결과, 아침 식사는 '항상 먹는다' 34.2%, '가끔 먹는다' 32.7%, '먹지 않는다' 33.1%이며, 전체의 66.5%는 식사가 불규칙하며 5.3%는 항상 과식을 하고 있었다. 간식 여부는 민간시설 교사의 35.1%는 항상 하고 있으며, 국·공립시설의 37.3%는 가끔 한다고 답하였다($p<0.001$). 전체의 50.8%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였다. 전체의 61.2%는 식사 전에 항상 손을 씻고 있으며, 68.4%는 식사 후 항상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 건강보조식품은 전체 57.1%가 섭취 경험이 있으며 주로 섭취한 것은 비타민제이었다.

급식 지도 실태 조사 결과, 전체 56.4%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하여' 급식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주로 급식 시간에 급식 지도(64.3%)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급식 지도 정보원은 국·공립은 자신의 경험(40.0%), 인터넷(32.0%)이나 민간시설은 잡지(39.3%), 자신의 경험(30.4%), 인터넷(20.4%)이었다($p<0.01$). 급식 지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동들의 편식(45.9%)이었다. 84.2%가 연수 교육 경험이 없으며 향후 희망하는 교육 내용은 아동의 편식 지도와 영양 교육이었다.

급식 지도 활동을 조사한 결과, 급식 지도 평균값은 4.53이며, 국·공립시설 4.53, 민간시설 4.54이었다. '식사 전 손을 씻게 지도'($p<0.05$), '바른 자세로 앉아 먹게 지도'($p<0.05$), '음식물을 남기지 않게 지도'($p<0.001$)에서 시설간 유의차가 있었다.

보육교사의 식행동과 급식 지도 활동 정도와의 관계는 과식을 하지 않거나 항상 과식하는 교사와 가끔 과식을 하는 교사 간에 급식 지도 활동 정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며($p<0.05$), 본인의 식습관 평가에서 본인의 식습관을 균형적으로 평가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이상과 같이 전주 지역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의 식행동

은 높은 식사의 불규칙성 및 간식 섭취 등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은 본인들의 올바른 식행동을 위한 식품과 영양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급식 지도를 위하여는 현장에서 아동들이 급식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식사 지도 프로그램 또는 유아들을 위한 급식 관리 지침서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이러한 지침서는 현직 교사들을 위한 보수나 연수 교육에 확대·포함시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06.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2007.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8. 보육통계: 보육시설 수 및 아동현황
 전북보육정보센터. 2010. 보육통계: 전북 지역 보육시설 수 및 아동현황
- Ahn SH, Kim JE. 2010. A depth interview on qualification, role, and professionalism of infant/toddler teachers. *Korean J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87-97
- Chang HJ, Park YJ, Ko ES. 2008. Current and future foodservice management performance in child-care centers. *J Korean Diet Assoc* 14:229-242
- Choe ES, Lee YE. 2009. Quality evaluation of foodservice within child care centers in Chungbuk province. *Korean J Food Culture* 24:267-278
- Choi KY, Lee HS, Kim EH. 2005. Meal services and young children's eating habit guidances by kindergarten types. *J Korea Open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10:337-360
- Han YM, Yee YH, Lee JS, Oh YJ, Kwon JY, An KO, Park ES. 2004. A study of early child care center teacher's attitudes for meal and snack guidance between Sweden and Korea.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9:706-715
- Huh ES. 2007.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inservice education and its aim for quality enhancement of child care teachers. MS Thesis, Sungkyunkwan Uni. Suwon
- Jang ML, Kim TB. 2003. A study of the actual condition of kindergarten meals programs. *Korean J Early Childhood Edu* 23:261-285
- Kang YJ, Jung SJ, Yang JA, Cha YS. 2007. School dietitians' perception and intake of healthy functional foods in Jeonbuk province. *J Korean Soc Food Sci Nutr* 36:1172-1181
- Kim HR, Shin ES, Lyu ES. 2008. Mother's perception on nutrition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 Busan area - A demographical factor approach. *J Korean Diet Assoc* 14:276-290
- Kim JS. 2003. A study of meal services for kindergarten children, their behaviors during meal time and teacher's guidance in their meal life. MS Thesis, Ewha Woman's Uni. Seoul
- Lee JK, Cho DS. 2006. The eating behavior and food preference of preschool children in Sungnam day care facilities. *Korean J Food & Nutr* 19:482-495
- Lee KW, Nam HW, Myung CO, Park YS. 2005. Nutrition knowledge and guidance activities during meal time of day-care center teacher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5:623-631
- Lee KW, Yoon JY, Shim JE. 2008. Status of children's breakfast skipping and their mother's needs for breakfast service at child care center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3:682-692
- Lee MS, Lee JY, Yoon SH. 2006. Assessment of foodservice management performance at child care center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1:229-239
- Lee SK, Shin MS. 1997. Evaluation of nutrition education and foodservice in educare centers in Kwangju and Chonnam province. *J Science Better Living* 7:1-8
- Lee YM, Oh YJ. 2005. Parent's perception and attitudes to the school meal service program(SMSP) in kindergarten.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0:141-150
- Lim HS. 1997. A study on dietary pattern of pre-school children. *Korean J Nutr* 10:207-302
- Park SY. 2006. Food habits and food preference of teachers in nursery school and kindergarten - Centering on some regions in the Gyungbuk province - MS Thesis, Daegu Uni. Daegu
- Park YJ, Kwak TK, Kang YJ, Chung HK. 2003. Assessment of the child care center's foodservice facility and development of the kitchen facility model based on the general sanitation standards and guidelines. *J Korean Diet Assoc* 9:219-232
- Rho JO, Lee EP, Lee SK. 2009. Assessment of food service management practices in child care centers operated by various types of foundations in Chonbuk area of Korea. *Korean J Food Cookery Sci* 25:74-83
- Seo SK. 2006. A study on eating habits and nutritional knowledge of secondary school teacher in Jeonbuk province. MS Thesis, Chonbuk National Uni. Jeonju
- Sin EK, Lee YK. 2005. Menu development and evaluation through eating behavior and food preference of preschool children in day-care centers. *Korean J Food Culture* 20:1-14

- Son JK. 2001.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daycare teachers. MS Thesis, Kookmin Uni. Seoul
- Song J, Heo YR. 2010. A study on nursery school teacher's knowledge and education of nutrition care in Gwang-Ju.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5:159-168
- Song KS. 2008. The problematic analysis on working conditions and duties in teachers of corporate-sponsored child care centers.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3:107-127
- Woo YJ. 1998. Dietary habits and nutrition knowledge of the teachers and day-care center in Seoul. MS Thesis, Ewha Woman's Uni. Seoul

접 수 : 2010년 6월 25일

최종수정 : 2010년 7월 2일

채 택 : 2010년 7월 19일